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김선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15차의 공감, 15차 공동체의식, 15차 부모자녀의사소통, 15차 학교적응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은 부모자녀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졌다. 둘째,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학교적응의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 발달, 청소년 공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학교적응, 부모자녀의사소통

논문 투고일: 2025. 01. 31.

최종심사일: 2025. 03. 26.

게재확정일: 2025. 06. 20.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Kim, Sun Kil, 105 / 204, 10, Gyeongwon Royal Palace 1-gil, Jeonju-si,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55007, E-Mail : twin9074@naver.com

I. 서론

2024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심포지엄에서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1,516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이 40.5%로 일반청소년(9.5%)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세부 현황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주요 우울장애(20.9%), 강박장애(11.4%), 약물 사용장애(8.7%), 틱장애(7.3%), 알코올 사용장애(7.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우울’과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 ‘사회적 은둔’ 등으로 조사하였다(익산시, 2024).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을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맥락적 변화 등이 일어난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통제나 관여를 점차 완화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아동기 때와 달리 보다 평등한 양상으로 변해가게 된다(Feldman & Gehring, 1988; Furman & Buhrmester, 1992). 즉,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로 진입하지 못한 주변인으로서 갈등과 방황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생물학적 변화, 인지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이해해야 사회 및 정서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청소년기에 사회 및 정서발달의 특징으로 자기 개념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겪게 되는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며, 정서상태의 잦은 변동성과 격렬한 감정의 급격한 변화도 하나의 특징(기분의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도덕적인 사고 및 추론능력이 정교해짐에 따라 시민적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유하나, 2024).

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는 심리·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지적역량을 향상시키고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고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의 경험기회를

제공하며(Vieno et al., 2007),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자신이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생활과제의 장으로 보고 있다(이규미·김명식, 2008). 그리고 청소년기에 최소 두 번의 학교급 변화(초등 → 중등, 중등 → 고등)가 청소년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급으로의 진학으로 교육 과정에 변화가 오게 되고 상급 학교에서는 학업량이 많아지고, 더욱 분화된 교과목을 따라가야 하며,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학업 경쟁이 심화되는 등 더욱 복잡·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의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의 감정기복 및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정송 외, 2022).

이렇게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교 내 환경과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친구와 교사 관계, 외부 환경 등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들에 의해 나타나는 갈등이나 행동들로 인해 발생한다(김현주·이혜경, 2011). 즉,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심리적 건강과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으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였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가정 폭력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범, 2009).

또한, 학교 부적응은 학업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학교라는 제도 내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학교를 이탈하여 학교 밖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자포자기 심정의 학교 중단’, ‘학교 내 계속되는 방황과 점층되는 부적응’, ‘역기능 가족 속 상흔’과 ‘가난의 굴레’, ‘애어른의 힘겨운 성장기’, ‘상실된 삶의 조절력’의 현상이 나타났다(명소연·조진욱, 2016). 그리고 학업중단 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업 성적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에 대한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교사의 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혜숙, 2022).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은수, 2021).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자본 요인 중 신뢰, 관계망, 가족, 또래친구, 교사요인 등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임걸, 2024). 이는 학교적응이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작용한다(박민정 외, 202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기의 진로적응력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었으며(정지희 외, 2025), 부모가 자녀양육을 할 때 부모의 내·외적 태도와 행동의 부모양육태도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의 발달에 촉진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허묘연, 2004), 특히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임혜림 외, 2014). 또한, 신체적·인지적 성숙으로 인하여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친밀감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되고 자신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보이게 되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유하나, 2024).

위에서 언급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듯이 청소년기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청소년의 사회성과 정서가 발달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대두와 학교 부적응에 대한 위험요인의 노출로 올바른 자녀성장을 위한 부모의 양육이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잘 하기 위하여 부모양육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역량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및 정서발달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및 정서발달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 공감과 공동체의식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공감 요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써 인간관계를 가장 심화시키는 요소라고 하였다(Rogers, 1975). 공감 능력을 단일 개념이 아닌 인지적·정서적 요인들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박선하 외, 2014).

공동체의식 요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한 전제조건이라고 하였으며(박수원·김섯별, 2016),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의식의 관계적·정서적 특징을 표현하는 정의라고 하였다(박정서, 2012).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과 집단의식임과 함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신뢰 친밀감, 이타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공동체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정서, 2012).

즉, 청소년의 감정과 정서조절능력 등은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의 공감 요인과 연계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인지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청소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소속감과 집단의식을 정서적으로 느끼는 공동체의식의 요인과의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하기 위한 요인 중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 및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보육 / 교육 / 학차, 교육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설문을 조사하였고, 특히,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은 아동 특성에서 대분류되는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이며,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은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미래 / 진로, 경제·사회영역으로 4개의 중분류가 되었다. 사회 및 정서발달에서 중분류 된 공감 요인과 경제·사회 영역의 공동체의식 요인으로 구분하였다(한국아동패널 사용자 지침서, 2024). 한국아동패널조사의 데이터 중 아동들이 중학교 입학하는 14차 조사에서 공감요인을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에 포함하였으며, 공동체의식 요인은 초등학교 6학년(13차 조사) 때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서 본 논문 연구에서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및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한국아동패널 조사 사용자 지침서, 2024).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연구하였다(오은주·남재걸, 2017). 공감 능력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와는 별개로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김은경, 2009),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학업 성취도보다 공감 능력이 더 설명력이 크다고 하였다(최명자, 2006).

두 번째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연구(배화옥·김현정, 2019; 김은혜 외, 2021), 시민의식, 참여의식, 협동의식,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요인으로 살펴보았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는 3가지의 심리적 요인(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요인으로 살펴보았다(김진숙 외, 2023).

세 번째로 부모양육과 학교적응과 연계된 연구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차한솔 외, 2019), 부모공감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이혜진·조용주, 2021).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탄력성과의 영향 연구를 진행하였다(엄기란·조용선, 2021). 중·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일 때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부분매개하여 학교생활 적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연구하였다(엄기란·조

용선, 2021).

이렇게 학교적응의 다양한 요인과 같이 연구가 지속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교적응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과 부모자녀의사소통과의 관련된 요인을 통합적으로 함께 다루면서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시민을 육성하며,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적응과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로는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이연희·탁진국, 2017), 코칭을 접목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긍정적인 효과와 청소년과의 관련한 다양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장명옥, 2016).

본 논문에서는 각 요인별로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 부모자녀의사소통, 학교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연구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이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되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통계자료이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제 본 조사에 응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패널로 확정하였다. 표집된 신생아가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5차인 중학교 2학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의 공감과 공동체의식, 양육형태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사회 및 정서발달의 학교적응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빈도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총 대상자 2,150명 중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1,304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청소년 성별	남학생	667	51.2
	여학생	637	48.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909	69.7
	읍/면	164	12.6
	중소도시	231	17.7

가구구성형태	부모, 자녀	1141	87.5
	조부모, 부모, 자녀	115	8.8
	부모, 자녀, 친척	7	0.5
	조부모, 부모, 자녀, 친척	41	3.1
“모”동거여부	함께 거주(동거)	1,274	97.7
	떨어져 거주(별거)	27	2.1
	결측	3	0.2
“부”동거여부	함께 거주(동거)	1,187	91
	떨어져 거주(별거)	114	8.7
	결측	3	0.2
소계		1,304	100.0

응답 청소년의 성별로 남학생은 667명(51.2%), 여학생은 637명(48.8%), 거주지역 규모로는 대도시는 909명(69.7%), 읍/면은 164명(12.6%), 중소도시는 231명(17.7%)이다. 가구 구성 형태로 부모·자녀는 1,141명(87.5%), 조부모·부모·자녀는 115명(8.8%), 부모·자녀·친척은 7명(0.5%), 조부모·부모·자녀·친척은 41명(3.1%)이다. “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은 1,274명(97.7%)이며, “부”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은 1,187명(91%)이다.

2. 연구 도구

1) 청소년 공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감척도 개발과 타당화 논문에서 연구된 척도를 사용하였다(홍예영·김유숙, 2015). 청소년 공감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표현적 공감 7문항, 인지적 공감 4문항, 정서적 공감 4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 (6점)’의 점수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는 ‘교육중단연구 2005년’의 설문문항을 ‘교육중단연구 2013년’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며(김양분 외, 2013), 하위영역 구분 없이 척도 사용이 가능하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의식에 해당되는 질문은 1. ○○(이)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2. ○○(이)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3. ○○(이)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니? 4. ○○(이)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하니? 5.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니? 6. ○○(이)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주니? 이다. 점수가 높으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화 방식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부모자녀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를 척도로 사용하였다(김영식 외, 2012).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화 방식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의 척도를 사용하였다(이규미, 2005). 4개 영역과 영역별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개 하위 영역과 요인으로 학교공부 8문항 (학업유능감 5문항, 학업가치 3문항), 학교친구 10문항 (친구관계 5문항, 상호협조성 5문항), 학교교사 10문항 (교사호감 6문항, 교사친밀감 4문항), 학교생활 10문항 (질서 / 규칙준수 7문항, 학교생활만족 3문항)이며,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학교적응의 정도

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설문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화 방식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 관계에서 부모자녀의 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매개변수는 모두 중학교 2학년이 설문한 결과이며, 자료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IBM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 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간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은 모두 유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4.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척도에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조건은 Cronbach's α 값이 0.6을 기준으로 하며 (Hair et al., 1998),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의 공감은 .928, 공동체의식은 .847, 부모자녀의 사소통은 .934, 학교적응은 .939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α 값이 0.6 이상으로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분석

주요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청소년 공감 15차	15	0.928
청소년 공동체의식 15차	6	0.847
부모자녀의사소통 15차	10	0.934
학교적응 15차	38	0.939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 분석

주요변인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청소년의 공감 15차	1.00	6.00	4.2084	0.82375	-0.469	0.9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15차	1.00	5.00	3.7447	0.65021	-0.387	0.702
부모자녀의사소통 15차	1.00	5.00	3.9106	0.67032	-0.548	0.856
학교적응 15차	1.00	5.00	3.8247	0.51037	-0.299	0.498

주요 변인별 평균으로 청소년의 공감 15차는 4.208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15차는 3.7447, 부모자녀의사소통 15차는 3.9106, 학교적응 15차는 3.8247이었다. 더불어 각 변인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4개 요인 모두 부적편포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왜도의 점수는 절대값 3이하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첨도의 점수는 10 미만으로 결과로서 정규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Kline, 2005).

2. 상관 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 공감은 공동체의식($r=.689, p<.01$), 부모자녀의사소통 ($r=.317, p<.01$), 학교적응 ($r=.469, p<.01$)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공동체의식은 부모자녀의사소통 ($r=.369, p<.01$), 학교적응($r=.622, p<.01$)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은 학교적응($r=.469, p<.01$) 정적인 유의한 관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요 변인이 모두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r 값이 0.2~0.4의 값을 갖고 있는 공감과 공동체의식은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변인에 각각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r 값이 0.4~0.7의 값을 갖고 있는 공감-공동체의식 및 공감-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학교적응, 부모자녀의사소통-학교적응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상관 분석

	공감 15차	공동체의식 15차	부모자녀의사소통 15차	학교적응 15차
1. 청소년 공감 15차	1			
2. 청소년 공동체의식 15차	.689**	1		
3. 부모자녀의사소통 15차	.317**	.369**	1	
4. 학교적응 15차	.469**	.622**	.469**	1

** $p<.01$

3.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및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정방법을 활용하여 3단계에 걸쳐서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송지준, 2019). 1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2단계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간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검증을 진행하였다. 매개효과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의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매개변인의 부모 자녀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4.2%의 설명력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F값($F=108.008$, $p<.01$)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Durbin-Watson 값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도출되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고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공감($\beta=.119$, $p<.01$) 공동체의식($\beta=.286$, $p<.001$)이 부모자녀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공감과 공동체의식의 수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의사소통은 높아졌다.

2단계는 독립변인의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종속변인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명력은 42.4%로 나타났고, F값($F=476.301$, $p<.001$)은 유의하였고 Durbin-Watson값은 1.982로 양호하였다. 결과를 보면, 공감($\beta=.268$, $p<.001$), 공동체의식($\beta=.470$, $p<.001$)으로 학교적응과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의 수준도 높아졌다.

<표 5 > 매개효과 분석

단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β eta	t	p	수정 R^2	F	Durbin-Watson
1	부모 자녀 의사 소통	공감 15차	.097	.029	.119	3.3356	0.001**	.142	108.008	1.917
		공동체의식 15차	.295	.037	.286	8.054	0.000***			
2	학교 적응	공감 15차	.166	.018	.268	9.209	0.000***	.424	476.301	1.982
		공동체의식 15차	.343	.023	.470	14.996	0.000***			
3	학교 적응	공감 15차	.147	.017	.237	8.547	0.000***	.481	476.301	2.023
		공동체의식 15차	.285	.022	.363	12.796	0.000***			
		부모-자녀 의사소통 15차	.198	.016	.260	12.003	0.000***			

** $p<.01$, *** $p<.001$

3단계는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매개변인)이 학교적응(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설명력은 48.1%이며, F값이 유의하였고($F=476.301$, $p<.001$), Durbin-Watson값도 2.023로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beta=.237$, $p<.001$), 공동체의식($\beta=.363$, $p<.001$),로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단계·3단계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살펴보면 β 값이 요인별로 감소함으로써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를 확인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은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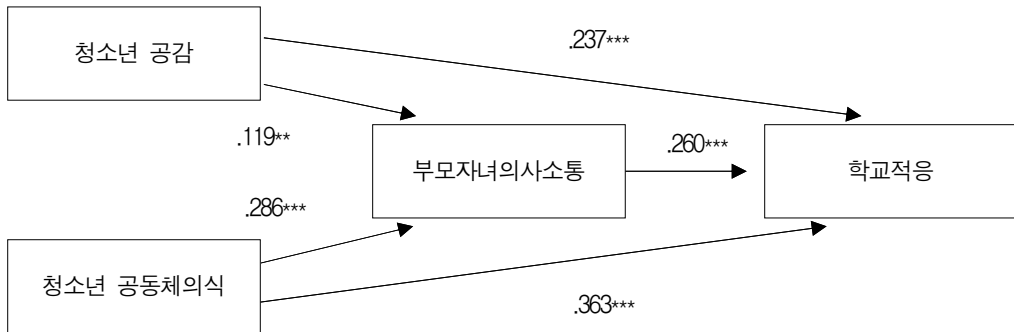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을 높이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을 높이는 코칭을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학교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매개효과의 유의성 분석-Sobel-test 검증

	경로	B	SE	Z
공감	독립 → 매개	0.097	0.029	3.228***
	매개 → 종속	0.198	0.016	
공동체 의식	독립 → 매개	0.295	0.037	6.702***
	매개 → 종속	0.198	0.016	

*** $p < .001$

분석 결과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분석 결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계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 내에서 원활한 적응을 돕고 올바른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을 같이 연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원활한 적응을 위한 인과관계를 같이 파악하여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회 및 정서발달(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은주·남재결(2017)의 연구와 배화옥·김현정(2019), 김은혜 외(2021) 등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내에서 특별활동 및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 및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과 공동체의식)은 부모자녀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상호 작용되는 요소로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와 자녀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에게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선정·이효정(2022)의 ‘중·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지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학업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청소년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청소년 공감능력 향상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의 실행과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의 계획수립과 지침하달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용하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사회 및 정서발달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원활한 학교적응이 되기 위해 청소년 자신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부모로서 자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올바른 시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학교부적응을 예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공감 및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청소년의 성장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학교 내 활동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청소년 공감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높이면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을 높여서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는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되어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양분·임현정·남궁지영·박희진·신혜숙·김성식·김종민·이규민·반재천(2013), 한국교육중단연구(KELS) 2013(I)-조사개요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기술보고 TR2013-84.
- 김영식·선우성·김병수·박훈기·옥선화·차동혁(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 김은경(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 김은혜·손유나·노충래(202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학교생활 적응 및 다문화 수용의 중단적 안정과 상호 영향. **학교사회복지**, 55, 129-151.
- 김종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진숙·김경화·강선아(2023), 청소년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설계 방향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1(2), 1-14.
- 김현주·이혜경(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23(1), 77-104.
- 류은수(20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4), 55-71.
- 명소연·조직옥(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24(2), 75-98.
- 배화옥·김현정(2019),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관계: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5(2), 135-156.
- 박민정·송서연·기현정·손보영(202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주의 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5(1), 47-61.
- 박선정·이효정(2022), 중·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9(3), 1-25.
- 박선하·김지현·김정민(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2(4), 225-237.
- 박수원·김셋별(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중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정서(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적태도 분석연구. **열린교육연구**, 20(4), 89-113.
- 송지준(2019), **논문통계의 이해와 적용**. 경기: 21세기사.
- 엄기란·조용선(2021),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483-497.
- 오은주·남재걸(2017),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 **청**

- 소년시설환경**, 15(2), 209-220.
- 유하나(2024), 청소년기 전반적 사회정서 발달과 발달적 위기. **한국심리학회지**, 43(4), 323-345.
- 이규미·김규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학 교**, 5(1), 27-40.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2), 383-398.
- 이연희·탁진국(2017),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코칭**, 1(2), 69-87.
- 이혜진·조용주(2021), 부모공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25-45.
- 임걸(2024),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 **부모교육연구**, 21(2), 53-71.
- 임혜림·김서현·정익중(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장명옥(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력향상을 위한 코칭적용 효과의 탐색적 연구. **코칭연구**, 9(4), 5-29.
- 전혜숙(2022), 학업중단 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영향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72, 139-170.
- 정지희·이웅택·이은경(202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 부모진로대화의 조절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0(81), 127-152.
- 정송·우연정·송주연·노연경(2022),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중단적 변화 탐색. **한국청소년 연구**, 33(2), 183-209.
- 차한솔·김주일·이호수(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최명자(2006),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예영·김유숙(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Feldman & Gehring (1988), Changing perceptions of family cohesion and power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9(4), 1034-1045.
- Furman & Buhmester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Rogers, C. R. (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Vieno, Santinello, Pastore, & Perkins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a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177-190.
- 국립건강정신센터(2024). 국립건강정신센터 청소년 실태조사.
- 익산시(2024), 익산시 청소년 실태조사.
- 육아정책연구소(2024), 한국아동패널조사 사용자 지침서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n School Adaptation

Kim Sun-Kil*

This study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effect of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empathy, community consciousness) on school adapt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15th empathy, 15th community consciousness, 15th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15th school adaptation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PSKC).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empath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s the level of empath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mong adolescents increased, the level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creased. Second, as the level of youth empath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ncreased, the level of school adaptation also increased. Third, in the communic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empath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to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to increase youth empath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suggested.

Keywords :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youth empathy, youth's sense of community, school adapta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